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IBKS Bond Inside

2026년 1월 FOMC 리뷰

2026년 1월 FOMC는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했다. 성명서에서는 인플레이션/노동시장에 대한 시차표현을 삭제했다. 2025년 美셧다운 사태 이후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늘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정치/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로 가늠한 양대책무의 균형은 수평에 가까워 보인다. 월러이사와 미란이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했으나, 인플레이션/고용 양측에서 개선이 나타나면서 2025년 12월 FOMC보다 균열이 확장되진 않았다. 현재 기준금리의 중립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여전히 고려한다.

양대책무인 경기/물가에 대해 불확실성은 줄었다. 기자회견 코멘트를 종합하면, 인플레이션/노동시장 중에서는 노동시장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둔다. 관세가 자극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았다.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승표현moved up in the year을 삭제했다. 관세發 인플레이션은 2026년 중반까지 상승압력이 있으나, 국가간에 보복관세 국면이 전개되지 않아 초기 예상보다 완화될 것이라 보았다. 소비지출의 양극화 패턴에 대해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 보았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증가가 둔화slowed했다'는 표현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remained low'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변화보단 수준에 무게를 둔다. '최근 몇개월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우려' 표현도 삭제했다. 이같은 변화는 실업률 안정화Stabilization와 연결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코멘트가 있었는데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 과연 균형잡힌 완전고용인가?'다.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지정학적 갈등/AI기술이 통화정책의 맥락에서 교차하는 코멘트다.

이때 노동력과 노동생산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에 대한 시각은 국가별로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기관의 노동시장에 대한 고찰은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여기에는 특정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속도)가 기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을 언급할 때 이민규제가 함께 다뤄지는 이유다(주:연준이 노동력(증감)에 방점을 둔다면,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AI/GDP/노동시장 관계는 AI활용으로 높아진 생산성이 노동시장 안정과 함께 관측됐다고 코멘트했다. 'AI기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노동력)가 줄어들지만, 중장기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사하나, 인간이 아닌 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등장했다.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주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에서 애초에 잡을 균형점이 없을 것이다. 급반전하는 트럼프發 통상분쟁, 지정학적 갈등 심화도 추계Prjection의 난이도를 높인다.

Fixed Income Analyst

정형주
02) 6915-5654
hj.jeong@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